

12-33 (통권 제 504호)

2012. 9. 7.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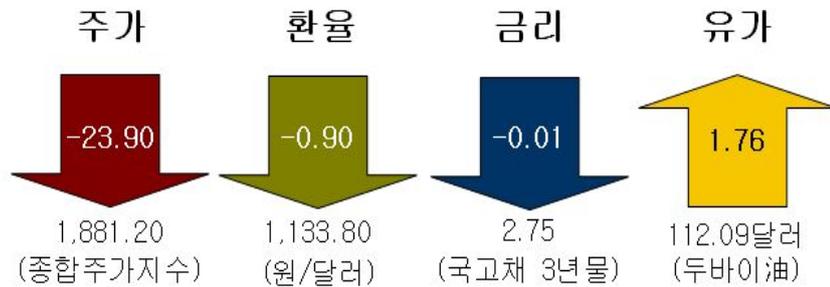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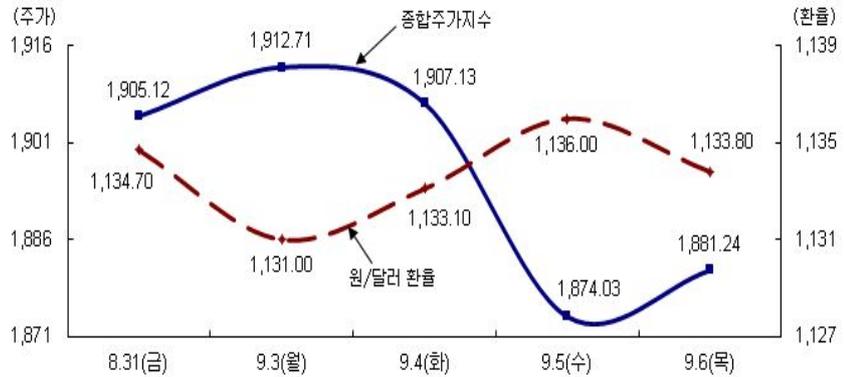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설비투자 부진 지속과 파급 영향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8.31~9.6)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설비투자 부진 지속과 파급 영향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0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성 : 김 민 정 연구 위 원 (2072-6212, kimmj@hri.co.kr)

Executive Summary

□ 설비투자 부진 지속과 파급 영향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나타내던 설비투자가 최근 악화되며 마이너스 증가율로 전환되었다. 국민계정내 설비투자를 살펴보면, 2012년 1/4분기 8.6%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며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최근 2/4분기 -3.5%를 나타내며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앞으로도 국내 설비투자는 부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국내 설비투자 수요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인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3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되며 크게 악화되었다.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2012년 2/4분기 1.5%로 급감했고 제조업생산능력 증가율은 3.3%를 나타내 설비투자조정압력이 -1.8%p로 크게 하락했다. 둘째,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 증가율이 올해 들어 감소세를 지속하고 원동기와 도로주행차량 및 기타수송용 기계 수주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내기계수주를 기종별로 살펴보면 2012년 2/4분기 기준, 원동기와 도로주행차량 및 기타수송용 기계가 각각 -28.2%, -36.4%를 기록했다. 셋째, 자본재의 수입 증가율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자본재 수입은 2012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5.2%를 기록하며 3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수송장비 수입이 급감하여 2012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14.4%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7월에도 전년동월대비 -16.6%을 기록하며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넷째, 설비투자전망 기업실사지수(BSI) 역시 하락세가 지속되며 100이하로 떨어졌고 특히, 수출기업의 설비투자전망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고 있다. 최근 수출기업의 하락세가 더욱 크게 나타나 8월 기준 수출기업은 92p, 내수기업은 96p 를 기록했다 이처럼 설비투자 선행지수가 모두 악화됨에 따라 향후 설비투자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비투자 부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부가가치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2년 2/4분기 기준으로 장기균형수준보다 설비투자가 적게 이루어졌는데, 만약 장기균형 수준만큼 설비투자가 이루어 졌다고 가정하면, 2012년 2/4분기에 3조 4,450억 원의 부가가치(2/4분기 GDP의 1.2%)가 더 창출되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같은 가정 하에서 고용측면을 살펴보면, 고용도 5만 6,270명 더 고용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 기준으로 살펴보면, 설비투자의 GDP 대비 과소투자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 균형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장기균형 수준만큼 설비투자가 이루어 졌다고 가정하면, 누적 GDP(2001~2011년)의 1.1%를 더 생산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설비투자 둔화는 단기적으로 경기회복력 약화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을 저하시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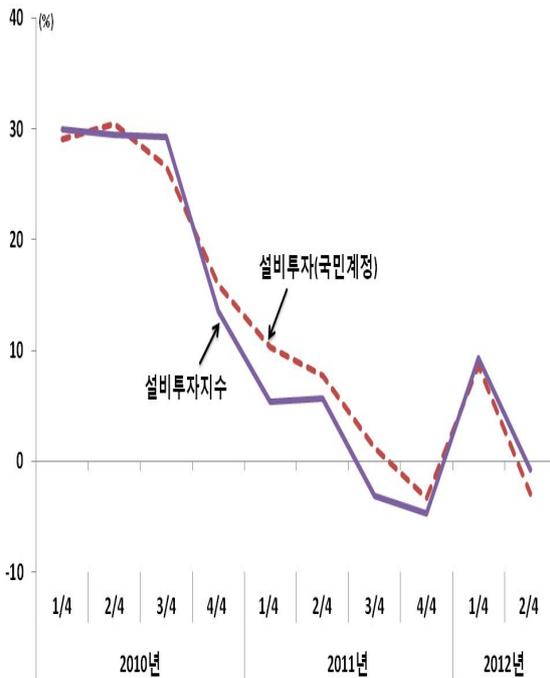
설비투자 부진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업의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해 각종 규제 완화 및 세제 개혁 등의 정책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 및 의료서비스와 관광·레저서비스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국내기업의 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셋째, 법인·소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U턴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 넷째, 중소기업의 은행대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저리자금조달을 확대하여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다섯째,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투자 분야 지속 발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자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경제민주화 등 정책혼선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국내 기업가 정신을 제고해야 한다.

I. 최근 설비투자 현황

○ (현황) 2012년 1/4분기에 회복세를 나타내었으나 최근 침체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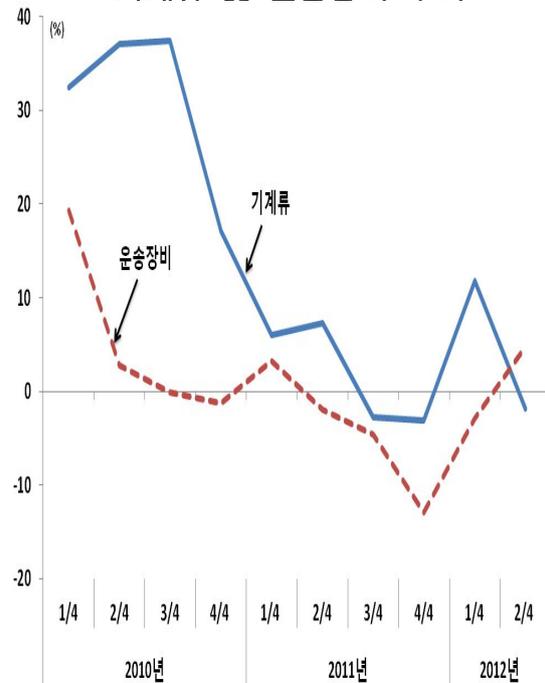
- 설비투자와 설비투자지수가 2012년 1/4분기에 회복세를 나타내었으나 최근 설비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
 - 국민계정상 설비투자는 2011년 이후 증가세가 약화, 4/4분기에는 -3.3%로 전환되었으나 2012년 1/4분기 8.6%를 기록, 광공업생산 통계의 설비투자지수도 1/4분기 9.3%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회복세
 - 하지만, 최근 2/4분기 설비투자와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각각 -2.9%, -0.7%를 기록하며 마이너스로 재반전되어 설비투자가 침체되는 양상을 나타냄
- 부문별로 살펴보면, 2012년 1/4분기 기계류 투자가 크게 증가하며 설비투자 회복을 이끌었으나 최근 기계류가 크게 침체되며 설비투자 침체 유도
 - 2012년 1/4분기 기계류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1.8%를 기록하며 크게 회복되었으나 최근 2/4분기 -1.8%를 나타내며 마이너스로 전환
 - 운송장비 투자는 2012년 1/4분기 -2.9%를 기록, 2/4분기 기저효과 영향으로 4.7%를 나타냄

< 설비투자 및 설비투자지수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기계류 및 운송장비 추이 >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II. 설비투자 부진 지속 예상

- (설비투자조정압력 마이너스로 전환) 2010년 이후 설비투자조정압력은 플러스를 나타냈으나 2012년 2/4분기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제조업 설비투자조정압력은 3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설비투자조정압력이 -3.7%p를 기록한 이후 2년 만인 2012년 1/4분기 -1.8%p를 기록하며 마이너스로 전환
 - 제조업 생산 증가율의 하락세가 생산능력 증가율의 하락세를 능가하며 설비투자조정압력 하락을 유도함
 -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2012년 2/4분기 1.5%로 급감했고 제조업생산능력 증가율은 3.3%를 나타내 설비투자조정압력이 -1.8%p로 마이너스로 전환됨
 - 설비투자조정압력이 하락세를 나타냄에 따라 향후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제조업 생산, 생산능력, 설비투자조정압력 추이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제조업생산 증가율 (%)	26.6	19.3	11.2	12.0	16.7	10.9	7.4	5.1	5.1	7.1	4.2	1.5
제조업생산능력 증가율 (%)	6.2	7.2	7.8	7.4	7.2	6.8	5.8	3.9	3.8	5.0	3.4	3.3
설비투자조정압력 (%p)	20.3	12.1	3.3	4.5	9.5	4.1	1.6	1.2	1.3	2.1	0.7	-1.8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 주 : 1) 설비투자조정압력(%p) = 제조업생산증가율(%) - 제조업생산능력증가율(%)
- 2) 분기 자료는 전년동기대비, 년 자료는 전년대비를 나타냄

○ (국내기계수주 침체) 국내기계수주 증가율이 올해 들어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원동기와 도로주행차량 및 기타수송용 기계 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감소폭이 더욱 확대됨
- 국내기계수주는 2012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2.1%를 기록했고, 2/4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17.8%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지속하고 감소폭도 확대
- 국내기계수주를 기종별로 살펴보면 2012년 2/4분기 기준, 원동기와 도로주행차량 및 기타수송용 기계가 각각 -28.2%, -36.4%를 기록하며 가장 크게 감소
- 글로벌 시장과 함께 내수시장 위축으로 기업들의 신규 공장 건설 등 대규모 설비투자를 하기보다는 보수적인 기업 경영을 함에 따라 최근 설비투자 급감

< 기종별 국내기계수주 증감률 추이 >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국내기계 수주	2.8	15.2	-6.8	13.3	5.7	19.0	13.6	3.5	11.3	11.8	-2.1	-17.8
원동기	-33.6	-52.5	-56.0	207.4	-30.2	77.3	142.3	22.4	58.9	66.1	-27.8	-28.2
특수산업용기계	116.7	138.1	26.2	-22.7	48.7	18.2	-24.4	-11.4	39.0	0.3	-27.4	-7.5
금속공작·가공기계	322.5	145.2	111.8	50.3	123.7	86.2	-6.6	-38.3	-37.0	-1.8	-24.6	-25.0
일반산업용기계	2.4	9.4	45.4	17.9	17.5	4.2	42.6	5.5	28.7	19.7	5.4	-11.1
사무, 통신, 전기기계	-25.2	-11.3	-2.6	-29.7	-18.5	-1.8	-6.9	10.4	15.8	3.8	12.9	8.9
도로주행차량, 기타수송용 기계	-4.1	21.3	-4.7	15.2	7.0	5.7	3.6	4.7	-25.6	-4.4	25.2	-36.4
의료, 정밀기기, 철 구조물	50.3	37.2	48.4	37.2	42.9	-4.8	14.1	-13.4	-17.7	-6.6	64.2	14.9

자료 : 통계청

주 : 1) 국내기계 수주는 선박제외

2) 분기 자료는 전년동기대비, 년 자료는 전년대비를 나타냄

○ (자본재 수입 둔화) 자본재 수입 증가율도 마이너스로 전환되며 크게 악화되고 특히 자본재 중에서 수송장비 수입이 급감

- 자본재 수입이 2012년 2/4분기 -5.2%를 나타내며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1/4분기 7.0% 증가율에 비교해 크게 악화됨
- 자본재 수입은 2012년 2/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5.2%를 기록하며 3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되며 크게 악화됨
- 자본재를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수송장비 수입이 급감하여 2012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14.4%의 증가율을 기록, 7월에도 전년동월대비 -16.6%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감소폭 확대
- 또한 전기·전자기기의 수입 증가율도 2012년 2/4분기 -8.9%를 기록, 7월에도 -5.2%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마이너스 지속
- 또한 기계류와 정밀기기의 증가율도 2012년 2/4분기 -2.6%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후 7월에도 감소세 지속

< 자본재 수입 추이 >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자본재	36.9	30.9	23.3	24.2	28.2	11.5	12.1	8.7	-0.2	7.8	7.0	-5.2	-5.5
수송 장비	31.1	45.9	23.6	38.5	34.6	14.6	7.6	25.7	-10.3	8.3	12.8	-14.4	-16.6
기계류와 정밀기기	53.4	53.2	43.2	23.2	41.8	3.5	12.2	3.8	4.7	6.0	17.9	-2.6	-3.0
전기·전자 기기	31.8	19.7	15.4	25.5	22.6	19.1	14.1	7.9	-1.8	9.2	-4.4	-8.9	-5.2

자료 :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 주 : 1) 월 자료는 전년동월대비, 분기 자료는 전년동기대비, 년 자료는 전년대비를 나타냄
- 2) 관세청의 분류에 따라 자본재를 수송장비, 기계류와 정밀기기, 전기 및 전자기기로 분류함

○ (설비투자전망 BSI 하락세) 최근 하락세가 지속되며 100이하를 나타내고 수출기업이 더욱 악화

- 한국은행의 기업실사지수(BSI), 전경련의 BSI 모두 100이하를 나타내며 하락세 지속
- 한국은행의 설비투자전망 BSI는 2011년 9월까지 100을 상회하였으나 10월 이후 100이하로 전환되어 2012년 8월 94로 하락
- 전경련의 투자 전망치도 2012년 3월까지 100을 상회했으나 하락세를 지속하여 8월 97로 떨어짐

< 설비투자전망 BSI 추이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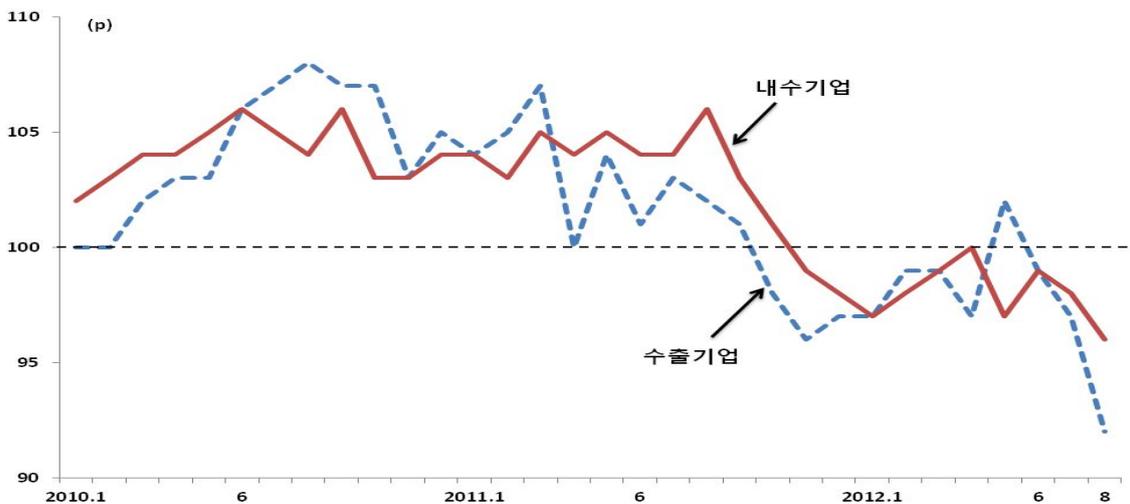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한국은행 BSI	102	105	106	103	104	102	102	97	98	99	98	94
전경련 BSI	104	108	106	106	106	104	101	101	101	99	98	97

자료 : 한국은행

- 주 : 1) 한국은행 BSI는 제조업에서 설비투자 전망
- 2) 전경련 BSI는 전산업 투자 전망

- 특히, 수출기업의 설비투자전망 BSI가 최근 크게 악화
- 내수기업과 수출기업의 설비투자전망이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나 최근 수출기업의 하락세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8월 기준 수출기업은 92p, 내수기업은 96p를 나타냄

< 내수·수출 기업별 설비투자전망 BSI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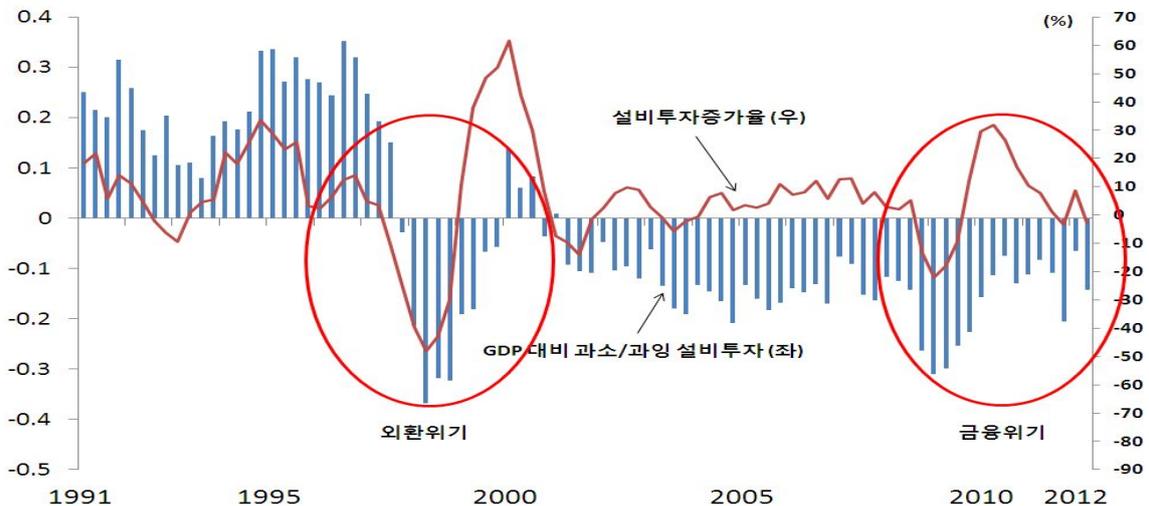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Ⅲ. 설비투자 부진과 대책

- (최근 설비투자 부진 악화) 장기균형 관계식을 기반으로 분석해보면, 금융위기 이후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나타내며 GDP대비 설비투자의 과소 투자가 축소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확대로 전환
- 설비투자와 GDP의 장기 균형식에 근거해보면, 설비투자의 부진이 2012년 1/4분기 감소하다 2/4분기 크게 확대
- 최근 설비투자를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후 GDP대비 설비투자의 과소투자가 확대되었다가 회복세로 전환. 하지만, 2012년 2/4분기 설비투자의 과소 투자가 크게 확대됨
-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의 과소투자가 축소되며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2001년부터 과소투자가 다시 확대되며 현재까지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됨

< GDP 대비 설비투자 과소·과잉 투자 추이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 1) 설비투자와 GDP의 장기균형식 추정을 위해 $\log \text{설비투자}_t = \alpha + \beta \log \text{GDP}_t + \varepsilon_t$ 를 회귀 분석. $\beta=1.27(0.019)$, $\alpha=-5.57(0.215)$,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편차, α 와 β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log \text{설비투자}$ 와 $\log \text{GDP}$ 의 공적분관계를 통해 장기균형식 추정, ε_t 에 대한 단위근 가설을 기각, 분기데이터 이용)

2) $\varepsilon_t = \log \text{설비투자}_t + 5.57 - 1.27 \log \text{GDP}_t$ 를 이용하여, 이 값이 플러스를 나타내면 과잉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내면 과소로 판단

- (설비투자 부진으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저하 초래) 최근 설비투자 부진은 경제 회복력을 약화시키며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저하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을 저하시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림
- (2012년 2/4분기 기준) 만약 장기균형 수준만큼 설비투자가 이루어 졌다고 가정하면, 3조 4,450억 원의 부가가치(2012년 2/4분기 GDP의 1.2%)와 5만 6,270명의 고용이 더 창출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 2012년 2/4분기 장기균형수준보다 설비투자가 적게 이루어졌는데, 만약 장기균형 수준만큼 설비투자가 이루어 졌다고 가정하면, 3조 4,450억 원의 부가가치¹⁾가 더 창출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 위의 가정 하에 고용측면을 살펴보면, 5만 6,270명의 고용²⁾이 더 창출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상반기 기준) 만약 장기균형 수준만큼 설비투자가 이루어 졌다고 가정하면, 4조 8,980억 원의 부가가치(2012년 상반기 GDP의 0.9%)와 8만 명의 고용이 더 창출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 2012년 상반기 설비투자가 장기 균형수준보다 적게 이루어 졌는데, 만약 장기균형 수준만큼 설비투자가 이루어 졌다고 가정하면, 4조 8,980억 원의 부가가치와 8만 명의 고용이 더 창출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적 기준) 2001년부터 설비투자의 GDP 대비 과소투자가 확대되며 2011년까지 설비투자가 장기 균형수준을 하회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축적을 저하시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
 -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만약 장기균형 수준만큼 설비투자가 이루어 졌다고 가정하면,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누적 GDP의 1.1%³⁾을 더 생산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1) 시계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변동분을 제거한 순수한 물량변동분만을 파악할 수 있는 특정연도(기준년)의 가격으로 작성한 불변 산업연관표가 필요함. 2009년 불변 산업연관표가 가장 최근 것임에 따라, 2012년 수치 계산시 2009년 불변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였고, 민간고정자본형성의 부가가치유발계수(0.777)를 이용해 계산함. (즉, 2012년에도 부가가치유발계수가 2009년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추정)

2) 2009년 불변 산업연관표 민간고정자본형성의 취업유발계수(12.7명/10억)를 이용해 계산함. (즉, 2012년에도 민간고정자본형성의 취업유발계수가 2009년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추정)

3) 시계열 분석을 위해,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2005년 불변 산업연관표를 사용,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각해의 불변 산업연관표를 사용, 2010년과 2011년은 2009년 불변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민간고정자본형성의 부가가치유발계수를 사용하여 추정함.

○ (정책 과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국내 경기의 부진이 전망됨에 따라 2012년 하반기 설비투자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대책 필요

- 첫째, 규제 완화 및 세제 개혁 등을 통한 투자 확대 유도

- 국내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서 공장 신설 제한 등 다양한 규제로 인해 투자가 제약됨에 따라 국내기업 역차별 규제를 완화
-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설비확장에 대한 투자보다는 R&D 투자에 대한 수요가 높음⁴⁾에 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
- 특히, 중견기업⁵⁾의 R&D 비용 세액공제율을 확대 및 매출액 구간별로 세액공제율을 차등화 하여 투자 확대 유도

- 둘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여건 개선

- 한-미, 한-유럽 FTA를 적극 활용하여 개방 확대 서비스분야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
- 특히, 교육 및 의료서비스와 관광·레저서비스업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 확대

- 셋째, U턴 기업의 적극적 지원

- 경제자유구역내 U턴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법인·소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
-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U턴 기업 생산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동 R&D 센터 및 공동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U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확대 유도

- 넷째,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관련 제도 개선 및 저리자금조달 확대

- 중소기업들은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또한 대출 문턱도 높음에 따라 설비투자를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간소화 하여 적기에 자금조달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

4) 한국정책금융공사의 2012년 상반기 주요기업의 설비투자계획조사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동기별 설비 투자를 보면 설비확장을 위한 투자가 75.9조원으로 전년보다 0.8% 감소할 전망. 그러나 연구개발투자(36.6%), 자동차 및 생력화(12.0%), 유지보수(8.5%)를 위한 투자 등은 증가할 전망

5) 현행 R&D투자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은 R&D비용의 25%를 공제하는 반면,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졸업 후 3년간 15%, 그 후 2년간은 10%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중견기업의 투자 유인 효과가 미흡함

- 장기 및 저리 자금의 공급확대로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투자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
- 다섯째, 서비스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신규 투자 지속 발굴
 - 국내 의료, 관광, 교육 등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규제 완화 촉진
 -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에 관련된 산업의 시설투자과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등으로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
 - *발전차액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기준가격(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이는 신재생에너지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소재·부품 산업의 적극 육성을 통해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IT 투자의 생산 및 투자 연관 효과 제고
- 여섯째, 투자 관련 정책의 일관성 유지로 기업가 정신 제고
 - 경제민주화 등 정책 혼선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 정책 여건 조성
 - 정부는 경기 및 경영환경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관된 경제 정책을 유지하여 기업의 투자 제약 요인을 해소

경제연구본부 김민정 연구위원 (2072-6212, kimmj@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0년					2011					2012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미국	3.0	3.9	3.7	2.5	2.3	1.7	0.4	1.3	1.8	3.0	2.0
유로 지역	1.9	0.4	1.0	0.4	0.3	1.4	0.8	0.2	0.2	-0.3	-0.3
일본	4.4	6.1	5.2	2.3	-0.6	-0.9	-6.8	-1.5	7.0	-2.3	2.4
중국	10.3	11.9	11.1	10.6	9.8	9.2	9.7	9.5	9.1	8.9	8.0

주: 1) 2012년 전망치는 IMF 2012년 7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8월 31일	9월 6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30	3.16	1.88	1.55	1.68	0.13%p
	엔/달러	81.19	80.66	77.66	78.58	78.43	-0.15¥
	달러/유로	1.3350	1.4492	1.2955	1.2511	1.2596	0.0085\$
	다우존스지수(p)	11,578	12,414	12,218	13,091	13,292	201p
	닛케이지수(p)	10,229	9,817	8,455	8,840	8,681	-159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8	3.76	3.34	2.76	2.75	-0.01%p
	원/달러(원)	1,134.8	1,067.7	1,151.8	1,134.7	1,133.8	-0.9원
	코스피지수(p)	2,051.0	2,100.7	1,825.7	1,905.1	1,881.2	-23.9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8월 31일	9월 6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1.40	95.18	99.22	96.44	95.24	-1.20\$
	Dubai	88.80	106.75	104.89	110.33	112.09	1.76\$
CRB선물지수	332.80	338.05	305.30	309.59	308.89	-0.70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